



교회 회원들이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손을 들어 새로운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제럴드 엔 런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항상 하시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우 관대하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라고 새로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은 제럴드 엔 런드 장로는 말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철학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제가 봉사에 대한 느낌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더 감사하고자 할 때 저를 더 축복해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더 큰 빛을 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의 말을 이었다. 제럴드 런드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대학에 가기보다 일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쇠슬로 굳은 시멘트 덩어리들을 치우면서, 그것은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시 브리감 영 대학교에 등록했고, 거기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에 가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말일성도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관리 역원 및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그리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지지 받음

새로 부름 받은 총관리 역원 및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그리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4월 6일 제172차 연차 대회에서 지지되었다.

제럴드 엔 런드 장로와 윌리엄 알 워커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보니 디 파킨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는 제1보좌로, 앤 시 핑그리 자매는 제2보좌로 각각 부름 받았다.

미국에서 13명, 브라질과 일본에서 두 명씩, 그리고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영국, 가나, 홍콩, 한국, 뉴질랜드, 파라과이, 페루, 그리고 우루과이에서 각각 한 명씩 모두 30명의 새로운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도 또한 부름 받았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토요일 오후 모임의 개회 말씀에서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에 대해 말씀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경기에 방문했던 수많은 방문자들과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대중 매체 관계자들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들을 인용했다. 그는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는 2,400여 젊은 말일성도들이 교육을 받도록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작년 4월에 발표한 영구 교육 기금의 성공적인 발전에 대해 언급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신권 모임에서 배우자, 노인, 그리고 어린이 학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말씀을 했다. 그는 “그것은 용납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

제럴드 런드는 1965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미나리를 가르치는 것을 기점으로 34년 간의 교회 교육 기구에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초기에 세미나리를 가르친 것 외에도 그는 종교 교육원에서 가르쳤으며 종교 교육원 원장으로, 교재 저자로, 그리고 여러 행정 관리 직책을 맡아 일했다. 그는 또한 여러 유명한 책과 논설의 저자이기도 하다.

런드 장로는 1939년 9월 12일에 유타주 샌피트 군 파운틴 그린에서 주얼과 에블린 런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그가 한 살 때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했으며, 그 이후 그가 대부분의 성장기를 보낸 유타주 머레이로 이사했다.

그는 1963년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 출신의 레타 린과 결혼했다. 그들은 일곱 자녀와 17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런드 장로는 뛰어난 작곡가이며 많은 작품을 출판했다. 런드 부부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 여러 번 공동으로 일했다. 런드 장로는 지부장, 감독 그리고 감독의 보좌로 봉사했다. 칠십인 재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런드 장로에게 부름이 왔을 때, 그는 브

리감 영 대학교 제14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



윌리엄 알 워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캐나다 앨버타 주의 레이몬드라는 작은 마을인 말일성도 마을에 살던 윌리엄 워커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집 근처의 자기 조부모댁에 자주 방문했다. 거기에는 대관장단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하면서 자랐습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윌리엄 알 워커 장로는 1944년 5월 25일에 제이 해리스와 베스 러셀 워커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녔고 거기서 그의 아내 빅키 밴 와그너를 만났다. 그들은 1968년 6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고 다섯 자녀의 부모가 되었다.

졸업 후 워커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로 이사하여, 그는 거기서 주식 증권업으로서 투자 사업에 관한 일을 시작했다. 워커 부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살았고 1988년에 유타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주의 콩코드, 조지아주의 던우드, 일리노이주의 케널위스에 살았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자회사의 사장을 역임하고 그 이후 세계 최대의 은행 중 두 곳인 시티은행과 바클레이 은행의 중역을 역임했다.

워커 장로는 그의 집 뜰에서 꽃과 과일 나무 가꾸기를 좋아한다. 그와 그의 아내는 또한 주님의 정원에서 일할 기회를 많이 가져왔다. 그들은 1990년에 도쿄 서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았고, 칠십인 재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유타주 샌디 카튼우드 크릭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이었다. 그는 감독으로 두 번, 고등 평의원, 그리고 지역 복지 책임자로 봉사했다.

워커 장로는 “제가 젊었을 때 했던 선교 사업은 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라고 말한다. “헝클러 대관장님이 일본을 세 번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 한번은 선교 본부를 방문했는데, 그때 그분은 저의 동반자와 저에게 감독과 스테이크장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께서 주신 놀라운 격려의 성취를 보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

대회 참석자들이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을 지나가고 있다.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 때문에 제 인생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여성의 덕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보니 디 파킨 자매는 말한다. 파킨 자매는 1940년 8월 4일에 제시 에이치와 루스 부티코퍼 댄시의 다섯 자녀 중 세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조부께서 브리감 영대관장의 지시에 따라 정착했던 솔트레이크

계곡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유타 주 헤리먼에서 자랐다. 그녀의 모친의 부모는 스위스에서 개종하여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 폴스에서 정착했다. 파킨 자매는 1962년에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직후 유타 주 바운티플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63년 2월에 그녀는 유타 대학교 의과 대학 1학년이었던 제임스 엘 파킨을 만났다. 그들은 1963년 7월 1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제 네 자녀의 부모와 열 네 손자녀의 조부모인 파킨 부부는 포웰 호수에서의 가족 휴가나 산에서 스키 타기를 좋아한다. 파킨 자매는 또한 정원 가꾸기, 테니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부름이 저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제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는 것이 제가 저의 와드에서 가장 어린 어머니 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지만, 와드의 자매들이 저를 받아들였을 때 저의 마음에 감미로운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름은 제 삶을 축복해 주었고 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유타 로건 종교 교육원과 옥덴 종교 교육원 연합 합창단



파킨 자매는 1990년부터 1994년에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 받을 때까지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으로 봉사했다. 그 후 1997년에 그녀의 남편은 영국 런던 서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3년간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저의 남편과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축복은 저를 아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로들과 자매 선교사들뿐 아니라 영국의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그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청년들은 상호부조회의 기쁨을 발견하고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청년들을 이끌어 주도록 간절히 격려하는 마음으로 파킨 자매는 “모든 자매들에게 상호부조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돕는 곳입니다.”라고 말한다. □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많은 훌륭한 재능과 능력 그리고 자질로 자매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도움과 우리 서로의 도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라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로 새로 부름 받은 캐서린 에이치 휴즈 자매는 말한다. 휴즈 자매는 경전의 말씀과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녀의 지식이 그녀의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가 안정과 평안

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그녀가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남편과 함께 미주리 주의 리버티 감옥을 방문했다. 그들은 거기서 요셉 스미스의 경험을 관찰하고 교리와 성약 121편에 기록된, 그가 받은 계시를 읽었다. 휴즈 자매는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를 격려하신 것처럼 그녀는 그녀 자신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의 하나로 제가 제 삶에서 주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전이 위안과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분명한 순간이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휴즈 자매는 1944년 10월 19일 유타 주 투엘러에서 윌리엄 데일리와 엠마 조한슨 허스트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1966년 11월 23일에 작가인 딘 티 휴즈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여 세 자녀와 다섯 손자녀를 두고 있다. 휴즈 자매는 1966년에 위버 주립 대학교에서 영어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4년에 센트럴 미주리 주립 대학교에서 특수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수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

쳤고, 1985년부터는 프로보 (유타) 학군의 관리자로서 일해 오고 있었다.

가장 최근에 휴즈 자매는 와드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녀는 또한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했고 본부 청년회 임원으로도 봉사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신권의 도움으로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름에 대해 큰 평안을 느끼며, 회장단에서 이 훌륭한 자매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은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



앤 시 핑그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앤 시 핑그리는 독서를 좋아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읽기를 배우도록 돕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핑그리 자매는 남편인 조오지 시 핑그리가 나이저리아 포트하커트 선교부를 감리할 때 그와 함께 봉사하면서 문맹 퇴치 운동, 특히 보조 조직 지도자들의 문맹 퇴치에 노력을 기울였다. "저는 자매들이 읽기를 배웠을 때 너무 기뻐하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훈련 모임에서 일어서서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간단한 문장들을 읽었을 때 거기에 있던 다른 자매들은 그들을 위해 박수를 치며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어 주었습니다."라고 핑그리 자매는 말한다.

핑그리 자매는 유타 대학교에서 영어 학사 학위를 받고 "나는 읽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언어 교육 자원 봉사자로 일했고, 또한 미국 언어 교육 자원 봉사 단체를 통해 라오스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영어 개인 지도를 해주었다. 핑그리 자매는 "저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경험을 주시므로써 다가오는 미래의 일들에 대비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언어 교육 경험이 그녀가 새로운 부름을 받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서 그녀는 상호부조회의 지속적인 강조 사항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

핑그리 자매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도 다른 한편으로 그녀를 준비시켜 주었다고 덧붙였다. "세계의 여성에 대한 나의 견해, 나의 통찰력, 그리고 나의 이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보다 신앙과 간증에 대해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으로 부름 받기 전에 그녀는 와드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스테이크 청년 회장단 보좌, 그리고 와드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그 경험들을 통해 교회의 자매들에 대한 큰 사랑과 감사를 갖게 되었다. "저는 모든 자매들에게 자신이 주님의 눈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우리는 성약의 자매로서 이 말일에 왕국을 건설하는 데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영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핑그리 자매는 1941년 6월 11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에즈라 티와 모드 에릭슨 클라크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1963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고 다섯 자녀와 네 손자녀를 두고 있다. □

컨퍼런스 센터 안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지역 성도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하는 옥스 장로와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8월부터 1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옥스 장로는 필리핀의 지역 회장으로 그리고 홀런드 장로는 칠레의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다.

이번의 임무 지명은 몇십 년 만에 처음 갖게 되는 일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즈라 테프트 벤슨 장로(1899~1994)와 마크 이 피터슨 장로(1900~1984)가 사도로서 유럽과 서유럽 선교부를 각각 관리했던 적이 있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1873~1970) 또한 1920년대 초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선교부장으로서 영국 선교부를 관리했다.

옥스 장로와 홀런드 장로의 이번 임무 지명은 지난 수년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성장으로 야기된 지역 발전이라는 도전을 충족시키려는 목표를 두고 있다. Deseret News와의 인터뷰에서 고든 비 헝클리 대관

장은 “성장은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의 새 임무 지명에서 옥스 장로와 홀런드 장로는 새로운 교회 지도자에 대한 훈련과, 새로운 회원들이 교회에 융화되며 성전에 참석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임무는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들의 그와 같은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경험을 얻도록 해줄 것이다.

칠레와 필리핀은 모두 최근 몇 년간 급속한 교회의 성장을 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교회 회원의 수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성장과 맞먹는 거의 50만 명의 회원이 증가되었다. 1984년의 필리핀 내 회원 수는 76,000명이었으며, 1990년에는 237,000명이었고 오늘날에는 대략 496,000명이나 된다. 필리핀에는 1,200개가 넘는 회중과, 80개의 스테이크 그리고 13개의 선교부가 있다. 필리핀 마닐라 성전은 1984년에 헌납되었다.

칠레에는 520,000명의 말일성도들이 살

고 있다. 칠레 산티아고 성전이 1983년에 헌납되었을 때, 이 나라에는 약 140,000명의 회원들이 있었다. 칠레는 1988년에 50개의 스테이크에 달하면서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회원 수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1983년과 1993년 사이에 칠레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 수와 스테이크 수는 배로 증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남미에서 가장 빠른 회원 증가를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1994년과 1996년 사이에만 26개의 새로운 스테이크가 생겨난 것을 포함한 계속된 성장은 1996년에는 칠레 지역을 별도로 만들게 했다. □

DVD로 시청 가능한 4월 연차 대회

16개 국가의 언어로 통역되어 있는 4월 연차 대회가 한 세트의 DVD로 제작되어 있다. 이제 회원들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광둥어, 세부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또는 통가어로 된 연차 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

이 DVD는 NTSC, PAL, SECAM 형식과 호환됨으로 전세계에 걸쳐 DVD 플레이어와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해 시청할 수 있다. 이 DVD 세트(물품 번호: 22057090, 미화: \$14.25)는 6월부터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





언덕에 세워진 스노우 플레이크 애리조나 성전은 현재 운영 중인 교회의 108번째 성전이다. 이 성전은 예언의 성취와 충실한 개척자들에 대한 찬사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서 있다.

헝클리 대관장, 애리조나 스노우 플레이크 성전 헌납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애리조나 주의 두 번째 성전이자 교회의 108번째 성전인 스노우 플레이크 성전을 3월 3일 4회에 걸친 모임에서 헌납했다.

헝클리 대관장은 “저희는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과 이 지역 사회에 계신 다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헌납 기도문에서 말씀하셨으며, 또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요청으로 1878년에 스노우 플레이크 지역에 왔던 초기 말일성도 이주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그 분들은 오랫동안 많은 종류의 역경들에 맞서 너무도 필사적으로 투쟁하셨습니다. 이제 그 분들의 후손들이 그 분들의 노력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고 있으며, 그 노력의 정수가 바로 이 장엄하며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에이 맥스웰 장로님과 북미 남서부 지역 회장단의 제2보좌인

데일 이 밀러 장로님이 헝클리 대관장과 함께했다.

이 새 성전은 애리조나 북동 지역과 뉴멕시코의 서부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성전 지역은 또한 아파치, 호피, 나바호 및 주니 인디언 보호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공 용단, 바구니 및 도기와 같은 물건들을 포함한 다양한 미원주민 문양과 가구들이 성전 내부 장식에 포함되어 있다.

스노우 플레이크와 인접한 마을인 테일러 지역은 브리감 영에 의해 시작된 이주 노력의 일부에 포함되어 회원들이 1878년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1880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에 속해 있던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그들 가운데서 성전의 가능성을 이야기함으로써 힘들어 하던 성도들이 난관을 이겨 내

도록 격려했다. 후에 그 예언적 말씀은 존 테일러 대관장(1808-1887)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에게 전해졌다. 충실한 성도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있었으며 그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갔다.

“스노우 플레이크의 역사와 유산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고, 그로 인해 이것이 바로 예언에 따라 지어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스노우 플레이크 태생이자 성전장인 리언 티 벨라드 성전장은 말했다.

“이 성전은 예언에 대한 응답이며, 우리에게 대한 대단한 찬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인 유타를 떠나 이곳에서 생활하라는 요청을 받았던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에 대한 찬사입니다.”라고 애리조나 스노우 플레이크 성전 위원회 조직자인 딘 포터는 말했다.

1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다. 비록 9,000명 만이 스노우 플레이크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9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2월 2~16일에 걸쳐 열린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벨라드 성전장은 수천 만 명의 방문객들이 이 지역에 얽혀 있는 가족 관계로 인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열정에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까지 데려왔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열정은 헌납 이후에도 식지를 않았다. “우리는 일 주일에 24회의 모임을 열었으며 거의 전 모임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라고 벨라드 성전장은 말했다. □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을 완성시켜 준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

스포츠 정신은 솔트레이크시티가 3월 8~16일에 걸쳐 열린 2002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을 주최하면서 계속되었다. 4,0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과 수천 명

의 관중들은 전세계에서 온 장애인 선수들이 스키 하강 경주, 하키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 대회에서 열띤 경쟁을 할 때 그들의 노력에 갈채를 보냈다.

성화 전달

3월 7일,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원희 회원들은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의 성화를 전달하기 위해 교회 행정 건물 앞에서 있었다. 계단에서 있던 대관장단은 유타 주 파크 시티 출신의 성화 횡보 봉송 주자인 캐리 스노디를 환영했다. 그녀는 대관장단의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에게 성화를 전달했으며,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대관장단의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에게 성화를 전해 주었고 그 후에 그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에게 성화를 넘겨 주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성화를 높이 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너무도 훌륭하며 위대한 운동 선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나가서 힘을 발휘하십시오! 경기에 승리하십시오! 메달을 타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희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며 이 경기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올림픽이 훌륭하고 놀랍고 멋진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승자가 되도록 합시다. 만세!"

그런 후 힝클리 대관장은 브리감시티 유타 박스 엘더 스테이크 브리감시티 제2와드의 마거릿 스톱스에게 횡보를 전해 주었으며 그녀가 횡보를 계속 날랐다.

선수로서 참가한 교회 회원들

2002 솔트레이크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한 36개 국가에서 온 1,000명 이상의 선수들 가운데 두 명의 말일성도들이 있었다. 하이랜드 유타 동 스테이크의 마운트 마호가니 와드 출신인 22살의 레이시 휴어드는 3월 11일과 14일에 있었던 여자 모노 스



사진 촬영: 제프리 디 올버드, 저지 뉴스 제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 성화 봉송자인 캐리 스노디를 환영하며 볼에 입맞춤하는 것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그의 아내 프란시스가 바라보고 있다.

키 부문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대부분의 경쟁자들을 뒤로한 채 활강해 두 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휴어드 자매는 겨우 18개월 되었을 때 사고로 인해 왼쪽 발을 못 쓰게 되었다. 하지만 그 신체적 장애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사람이 되자"는 자신의 선언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결국 이 경기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경쟁의 흥분과 에너지를 얻게 되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니 너무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알파인 유타 스테이크의 알파인 제11와드 회원 키드 바니는 5킬로미터 크로스컨트리 경주와 남성 바이애슬론 착석 스키 부문에 출전했다. 그는 또한 미 신체 장애인 올림픽 팀의 자전거 경주 선수이기도 하다.

바니 형제는 열 네 살 때 사고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 현재 그는 유타 대학교 메디칼 센터의 재활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이 장애를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족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동계 올림픽 업데이트

2002년 6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올림픽 선수들 이외에도, 테일러스빌 유타 사우스 스테이크 테일러스빌 제39와드의 회원인 28세의 킨 휠러는 미 버진 제도 동계 올림픽 지니아 봅슬레이 팀의 일원으로서 그 팀의 대표자였다. 휠러 형제는 대학 재학 중에 봅슬레이를 시작했으며 2000년 중반에 세인트 토마스에서 일하는 동안 버진 제도 봅슬레이 팀의 팀원들과 친하게 되었다. 그는 기대하지 않게 팀의 새로운 자리가 생기자 그 팀에 합류했다. □

유타 하이랜드 출신의 교회 회원인 레이시

휴어드가 국제 신체 장애인 올림픽 모노 스키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촬영: 레이첼 벨, 저지 뉴스 제군